

네 고장 문화유적

답시 자료집

여주문화원



여

백

내 고장 문화유적

답사 자료집

여주문화원

발간사



여주문화원장 한 만 규

인류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생 하였던것 처럼 여주의 문화도 여강과 더불어 성장 해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여주는 온화한 기후와 수려한 경관

그리고 후덕한 인심으로 옛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찾던 곳입니다. 또한 효와 충을 으뜸으로 알고 고귀한 선비정신을 간직해온 유서깊은 곳이며 수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훌륭한 유산들이 개인주의와 물질을 만능으로 여기는 세태에 휩쓸려 잊혀져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상들이 물려주신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자부심과 긍지의 뿌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여주문화원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역탐구학습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중요 유적들을 정성스레 사진에 담고 자상한 설명을 붙인 이 책은 여주문화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문화 여주인을 만드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자료집』이 유용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4월

여

백

목 차

발간사	2
여주의 역사와 자연환경	6
명성황후생기	18
세종대왕릉	24
효종대왕릉	34
신록사	40
고달사지	64
대로사	86
여주향교	90
목이박물관	94
여주군의 문화재 현황	102

여주의 역사와 자연환경

여주로 가기 위해서 한때는 굽이굽이 흐르는 남한강 물길을 이용했다. 임금님 진지상에 쓰이는 유명한 자채쌀을 서강나루(지금의 마포)에 부리고, 이튿날 다시 남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포돛배에 몸을 실으면 ‘어허라디야’ 흥겨운 뱃노래와 더불어 바람은 잘도 배를 밀어 올렸다.

때로 순풍을 타면 사나흘 물길, 그렇지 않으면 예니레가 걸리는 여정이 지나면 일찍이 고려의 문인 이곡(李穀)이 “만일 이 경치를 붓끝으로 읊기려면 글은 소동파나 황산곡이어야 하고 글씨는 안진경이어야 하겠네…”라고 읊조렸을 만큼 빼어난 산수를 지닌 여강(驪江) 이포나루에 닿을 수 있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이 나라 안에서 사람살기 좋은 고을 세 곳으로 대동강 유역의 평양, 소양강에 접한 춘천과 이곳 남한강 유역의 우리 여주를 꼽았거니와 한때 여주는 중부지방의 각종 농수산물 및 재목의 집산지로서 상업과 수운업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우리 고을에 뚜렷한 지명이 나타난 것은 고구려 장수왕 64년(476)의 골내근현(骨乃斤縣)이다. 그후 황려(黃驪)·여흥(驪興)을 거쳐 고려 우왕과 공양왕 때는 부(府)에서 군(郡)으로 승격과 강등을 거듭했다. 그후 1469년 세종대왕릉이 왕대리로 천장(遷葬)되면서 여주목으로 승격되어 고쳐 부르게 되었다.

여주의 농경문화는 일찍이 청동기인들에게서 발달의 기초를 찾게 된다. 1977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 때 점동면 혼암리에서 청동기시대 집터와 반월형 석도·무



▲ 여주평야전경

문토기 등을 비롯, 탄화된 벼·보리·조·수수등이 발견되어 우리나라 벼농사의 전개경로를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고장에는 선사시대 유물은 물론, 대신면 보통리와 능서면 용은리, 여주읍 상리·매룡리 등지에 많은 고분이 있고, 대신면 천서리에 파사산성, 능서면 신지리 성터등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에는 조선 제4대 세종과 왕비, 제17대 효종과 왕비가 잠들어 있고, 고건축물로는 상리 영월루와, 능현리의 명성황후생가, 대신면 보통리의 김영구가옥이 있다. 상리 영월루 밑에는 창리삼층석탑과 하리삼층석탑이 나란히 세워져 있으며, 북내면 천송리 신흥사에는 7점의 보물과 1점의 유형문화재가 있다.

특히 금사면을 비롯한 여주 전역에 걸쳐 장흥사터·주록리·하품리·연라리·보통리·상구리·삼합리 절터등 불교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그 중 북내면 상교리에 가을이면 유난히 붉은 산수유 열매가 주위를 감싸는 고달사터가 있는데, 국보 제4호인 부도를 비롯해 규모와 품격이 뛰어난 고려시대 문화재 여러 점이 절터를 지키고 있다. 흥천

면 계신리에는 마애불이 남한강가를 굽어보고 있다.

역사

(1)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능서면 백석리·내양리, 강천면 가야리등 곳곳에서 구석기시대의 각종 석기가 발견되고 있으며,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에서는 마제석축이 발견된바 있다. 또한 점동면 혼암리와 여주읍 떡곡리에서 민무늬토기·마제석부·빗살무늬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1977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로 확인된 혼암리 집터와 반월형 석도·갈돌·무문토기·홍도(紅陶)를 비롯하여 탄화된 보리·조·수수가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는 우리 고장에서 농경문화가



▲여주 혼암리 선사주거지 기념비

발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농경문화의 흔적은 우리나라 미작사(米作史)와 벼농사의 전개경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고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유적으로는 여주읍 매룡리 고분군의 시기를 달리하는 축조양식과 고배, 도자(刀子), 석침(石枕)등 7세기경의 토기류와 각종 유물이 발견되어 여주군은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큰 세력을 이룬 토하집단이 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온조가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영토확장에 주력할 때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우리군은 공방전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22년(온조왕 40)부터 214년(구수왕 1)까지는 슬천성(述川城, 지금의 금사면 이포리 외평리성지)에 말갈병의 침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백제의 요



▲여주남한강 전경

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대왕 때에는 잠시 고구려의 영토였다가 다시 백제에 속하기도 하였으나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한강유역을 점령할 때인 475년(장수왕 63)에는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여 골내근현(骨乃斤縣)이 되었다. 그 뒤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때인 550년(진흥왕 11)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일부까지도 점유한 562년(진흥왕 23)까지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다. 660년(무열왕 7) 천령군(川寧郡)에 술천성을 축조하여 고구려 방비의 제2선으로 삼았다. 경덕왕 때에는 황효(黃驍)라 고치고 기천(沂川)의 영현으로 삼았다.

(3) 고려

940년(태조 23) 황려현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 강원도 원주 임내(任內)에 이속하였다가 1031년에 다시 경기도로 복구하여 감무를 두었다. 고종 때에 영의(永義)로 1305년(충렬왕 31)에는 여흥(驪興)으로 고치고 원종비(元宗妃) 순경태후(巡警太后)의 내향이라 하여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어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 1388년(우왕 14)에 군에서 부로 승격되어 황려(黃驪)라 하였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우왕을 폐위시켜 이곳으로 보내면서 다시 여흥군으로 강등되었다.

(4) 조선

1401년(태종 1)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내향이라고 해서 다시 부로 승격되었고 음죽현의 어서이촌(於西伊村, 지금의 장호원 어석리 북부)이 여흥군에 병합되었다. 1413년 안성·음죽이 충청도로부터 경기좌·우도에 합칠 때 경기도에 예속되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469년(예종 1) 세종의 영릉(英陵)이 천장(遷葬)되면서 천령현을 폐하여 여흥에 병합, 목으로 승격되었다. 이때 판관을 두어 여주(驪州)로 고쳤다. 천령현은 지금의 흥천면, 금사면 전역과 부발면 북부를 합하였던 지역으로 고구려 때에 술천(述川) 성지매(省知買), 신라 경덕왕 때는 기천으로 불렸고 황효(여주) 땅을 영현으로 삼았던 곳이다. 천령현은 1018년 광주에 예속되어 감무를 두었다가 1413년 현으로 되었고, 1469년 고을을 없애면서 여주에 병합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이 고장 출신 강원도 조방장 원호(元豪)가 향병(鄕兵)을 초집(招集)하여 5월에 여강벽사(驪江壁寺, 신록사)에서 이천부사 변응정(邊應井)과 협력, 한강을 내

왕하는 왜적을 섬멸, 충주·원주에 주둔한 왜적이 지평·양근·양주·광주의 길을 취하여 한성과 통하는 길을 차단하였고 6월 10일에는 구미포(九尾捕: 지금의 개군면 구미리)에 주둔한 왜병을 기습하여 50여급을 참수하는 전과를 얻었다.

(5)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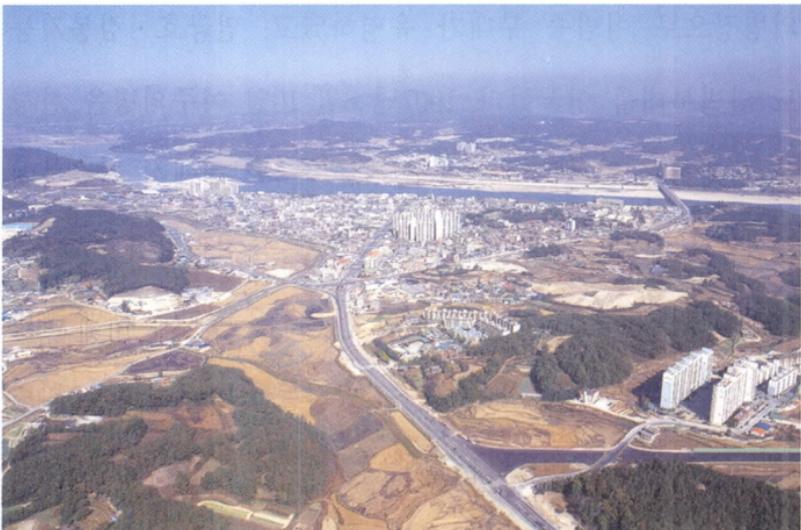
1895년 목에서 군으로 강등, 충주부의 속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로 환원되어 3등군으로 되었다. 제1차 의병 활동기인 을미의병 항쟁 때는 심상희가 1896년 2월 여주 장날을 이용하여 수백명의 의병을 지휘, 일본군을 살해하였다. 을사조약 체결로 일어난 제2차 의병항쟁 때는 여주 의병장으로 이범주 부대가 유명하였고, 민공호·김봉기등도 의병부대를 이끌었다. 1907년 8월 10일 여주의병은 한강을 향해하는 일본군 목선을 안창(安倉) 강변에서 기습하여 20여명을 사살하였고 12일에는 여주읍을 점령하여 서울-원주간의 연락을 차단하여 원주의 일본군을 고립상태에 빠뜨렸으며 계속 음죽·장호원을 장악하는 등, 수천명의 의병이 여주에서 활약하였다. 1914년 부·군·면이 폐합될 때 원주의 지내면(池內面)과 서면(西面)이 여주군에 편입되었

고, 주내면이 여주면으로 개칭되었으며, 북내·강천·흥천·능서·금사·개군·가남·점동·대신 등 10개면이 되었다.

3.1운동 때는 4월 1일 이포의 2,000명, 4월 5일 북내면의 800명, 곡수(曲水)의 3,000여명의 시위가 있었고, 신록사 승려 김용식의 천송리 시위도 있었다. 1941년 10월 1일 여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6) 현대

1963년 1월 1일 개군면이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70년 12월 16일에는 금사면 산북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4월 산북면으로 승격, 분리되었다. 1992년 3월 2일 북내면



▲ 여주읍 전경

오학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강천면 대둔리가 강원도 원주시로 편입되었다.

자연환경

여주군은 경기 남동단에 위치해 있는 군으로 면적 610.9 km²로 대략 한반도의 중앙부에 해당되고 동쪽은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 남서쪽은 이천시, 서쪽은 광주시, 북쪽은 양평군과 접한다.

여주군은 광주산맥의 연장인 구릉이 기복하고 있는 가운데를 남한강이 남동에서 북서로 관류하여 여주읍을 중심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남한강 및 그 지류 유역을 제외하면 해발고도 300~400 m의 저산성 구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 중 임야가 57.4 %를 차지하여 도내에서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군을 관류하는 남한강은 수운(水運)에 유리하여 여주를 수운을 이용한 미곡 집산지로 발전시켰다. 대체적으로 군의 서부가 저평한 데 비해 동부와 북서단에는 높은 산이 많다. 중부 내륙성 기후를 보여 기온의 연교차가 상당히 큰 편이며, 연평균 기온은 11.4 °C이다. 대개 10월 말경부터 4월 초까지 서리가 내리며, 강우

는 6~8월 사이에 집중되고 특히 봄철인 4월에도 강우가 많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 mm 정도이다.

여주군은 이른바 여주이천평야가 남한강을 끼고 펼쳐져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비교할때 그 면적이 대규모적이라 할 수 없으나, 통칭 경기평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백·차령·광주산맥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작은 하천을 이루며 남한강으로 모여져, 가뭄과 홍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년풍년의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여주의 봄풍경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내륙지역에 형성된 하천 유역의 충적평야로서 '여주이천쌀'이라는 고급품종의 경미미를 생산하는 특이한 소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명성황후생가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
- 시 대 : 조선 1687년(숙종 13)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2

명성황후생가는 원래 1687년 당시 임금인 숙종의 장인이며 인현왕후의 아버지인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 선생의 묘를 지키기 위한 묘막으로 지어진 집으로 민유중 선생의 5대 종손인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선생이 이 집에서 거처하면서 명성황후를 낳게되었다. ‘一’자 형의 행랑채가 붙은 솟을대문을 지나자 다시 안채로 들어가기 위



▲ 명성황후생가

한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중문이 사랑방이 붙은채로 있었는데, 이 중문을 지나자 비로소 명성황후가 탄생하신 안방이 있는 안채와 어린 명성황후가 뛰어놀았을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안채에는 1998년 당시 탄신 147주년 기념 승모제때 봉안된 명성황후의 모습이 그려진 진영이 모셔져 있다.

명성황후생가는 원래 당시 건물로 남아있는 것은 안채 뿐이었는데 1975년과 1976년에 안채가 중수되었고, 1996년에는 안채가 수리되고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등이 복원됨으로써 면모가 일신되었다. 비록 집에 쓰인 목재가 그

리 크지 않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인 간살도 넓지 않으나 각 구조물의 형태와 쓰임 등에서 조선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가를 나와 오른쪽으로 가니 명성



▲ 명성황후탄생지

황후의 탄생을 기념해 세운 비인 명성황후탄강구리비가 자리잡고 있다.

비석의 앞면에는 「명성황후탄강구리(明成皇后誕降舊里, 명성황후가 태어나신 옛 마을)」이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광무팔년갑진오월일배수음체경서(光武八年甲辰五月日拜手飲涕敬書, 1904년 갑진년 오월 어느날 엎드려 눈물을 머금고 공경히 쓰다)」라고 새겨져 있다.

비의 높이는 250cm이고 폭이 64cm인 이 비는 팔각지붕을 한 아담한 비각이 보호하고 있다. 비의 글씨를 쓴 사람은 필자 미상이나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 아들로 당

시 황태자였던 순종의 글씨로 추측하고 있다.

비각의 오른쪽에는 명성황후의 6대조 할아버지인 여양부원군 민유중 선생의 업적을 상세히 소개하고 찬양하는 글이 새겨진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몸통은 거북이, 머리는



▲ 명성황후 영정

용인 귀부의 머리가 묘소쪽을 향해 우향으로 틀어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1851년(철종 2년) 9월 25일 여주군 근동면 섬락리 (현 여주읍 능현리 250-1)에서 태어나신 명성황후는 고종의 왕비로 책봉된 후 주변 열강들의 침략, 특히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는 오랑캐를 이용해 막는다는 외교방법)의 정책으로 대항하는 정치적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명성황후가 소위 대륙 진출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국모시해'라는 당시 전세계가 경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은 비교적 순



▲ 명성황후 기념관

탄하게 진행되었지만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예로 1896년 21세의 김구 선생은 국모 시해의 원수를 갚기 위해 황해도에서 일본육군 특무장교 쓰지다를 죽였으며, 1909년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 14개항중 첫째가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라 명확하게 밝힌 점등이다.

역사는 진실을 저버리지 않는 것 같다.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이 명성황후의 시해범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곳이 히로시마 법정이고, 이 히로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원폭피해 지역으로 기억되고 있으니 말이다.

명성황후 생가앞에는 명성황후전시관이 있어, 명성황후 생가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열강들의 틈속에서 쓰러져가는 조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다 일본 낭인들에 의해 비참하게 시해되신 명성황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세종대왕릉

- 지정번호 : 사적 제195호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영릉은 조선조 역대 왕 중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재위 1418~1450)과 왕비 소헌왕후의 합장릉이다.

여주 영릉은 풍수지리상 천하의 명당자리라 한다. 영릉 덕분에 조선왕조의 국운이 100년은 더 연장됐다는 말이 지관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돌 정도이다.

당초의 영릉은 세종 28년에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태종



▲ 세종대왕릉(영릉)전경

의 능침인 헌릉(獻陵) 서쪽 언덕에 동릉이실(同陵異室 : 능 하나에 봉분 속 석실을 둘로 하는 합장 형태)로 조성된 능이었다. 오른쪽 석실은 세종의 수릉(壽陵 : 생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임금의 능)으로 삼고 왼쪽에 소헌왕후 심씨를 봉안했다. 그후 세종이 승하하여 문종 즉위년에 합장하니,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 된 것이다. 대모산에 마련한 태종의 능침인 헌릉은 지세(地勢)가 답답하고 주변의 소음이 끊임 새가 없다. 누가 보아도 좋은 자리가 못된다. 세종이 자신의 능침을 이곳에 정한 것은 순전히 부왕 곁에 누우려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영릉은 과연 길지가 못되었던지, 조정에서는 종종 세종릉의 천장문제가 거론되었다. 즉 세조때 이곳이 불길한 곳이라는 이유로 능을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서거정의 반대로 옮기지 못하다가, 1469년(예종 1) 다시 옮기자는 여론이 대두되어 같은 해 인 3월 6일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영릉이 옮겨오면서 지명도 여흥(驪興)에서 여주(驪州)로 바뀌었다.

옛 영릉에 있던 석물들은 모두 그 자리에 묻었는데, 묻힌 석물들은 1973년에 발굴되어 상석, 장명등, 망주석, 문·무인석, 신도비 등이 서울시청량리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

겨져 보존되고 있다.

영릉의 지세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층층이 해와 달의 모습을 띠면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국이라 한다. 거기에다 정남향이어서 “가히 만세에 나라를 이어갈 만한 기가 탄생할 자리”인데, 이를 모란반개형이라 한다.

영릉의 정문으로 들어서면 재실과 세종대왕 동상이 오른쪽에 서 있고, 왼쪽에는 세종대왕기념관인 세종전이 있다. 세종전 안에는 집현전 학사도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모작 혹은 진품으로 진열되어 있고, 세종전 밖의 잔디밭엔 해시계·자격루·관천대 등이 전시돼 있다.

훈민문을 지나 너른 능역을 조금 걸으면 능 주위를 흐르는 묘내수(墓內水)가 흘러드는 듯한 커다란 연못이 있고, 신성한 구역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홍살문이 참배객들의 마음을 다시금 경건하게 한다. 홍살문 바로 오른쪽에 배위(拜位)가 있는데, 여기는 왕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홍살문 앞에서 내려 절을 하고 들어갔다는 곳이다. 홍살문부터 길게 뻗어있는 참도(參道)를 따라 걸어 들어가니 제향을 하는 건물인 정자각이 다가선다. 이 정자각은 인조 17년(1639)에 불타 버리고 영조 48년(1772)에 개창하였다.

정자각엔 오른쪽과 왼쪽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 있다. 오른쪽 계단은 둘, 왼쪽 계단은 하나이다. 오른쪽 계단 둘 중 하나는 용머리와 봉황의 날개 같은 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니, 옛 격식으로 친다면 조각된 계단으로 임금이 올랐음에 틀림없다.

봉분 앞에는 4개의 돌로 받친 혼유석(魂遊石) 2개를 놓아 합장릉임을 표시했다. 혼유석은 일반묘의 상석과 같으나 쓰임새가 다르다. 일반묘의 상석은 봉분 앞에 있으며, 여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반면에 능제사는 정자각 안에서 지내고, 이때 능에 묻힌 혼백은 봉분 앞의 혼유석에 나왔어 당신의 제사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다.

봉분 둘레는 돌난간을 두르고 동자기둥에 십이지를 문



▲ 세종대왕릉 전경

자로 새겨 넣었다. 그 앞에 팔각으로 다듬어진 장명등과 능 앞으로 석상·석마·문인석·무인석을 배치했다.

정자각은 합장 봉분에 축이 맞추어진 배치이나, 홍살문의 위치가 틀어져 있어 참도는 꺾인 축형이 되었다. 현재의 홍살문은 후대에 옮겨진 듯하며 원래의 위치에는 초석이 남아 있다. 또한 수복방과 수라간의 위치가 정자각 바로 옆까지 올라간 특수한 예에 속한다. 1977년 능력 성역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1397년(태조 6) 4월 10일 한양 잠저에서 태어나 1408년(태종 8)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8년(태종 18)에는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이 해 8월 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

세종의 이름은 도(禔). 자는 원정(元正).소헌왕후(昭憲王后.1395-1446) 심씨는 좌의정 덕부(德符)의 손녀이며 영의정 온(溫)의 딸이다

세종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측우기·혼천의·해시계 등 많은 과학기구를 발명, 제작하였다.

또한 북방의 야인을 정벌하고 4군과 6진을 개설하여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압록강·두만강으로 확장하였으며 일

본 쓰시마섬을 정벌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한편 학문을 숭상해서 집현전을 두어 많은 학자를 양성하고, 활자를 개량하여 많은 책을 발간하였으며, 아악을 정립하였다. 또한 전제와 세제를 개혁하여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칭송이 높았다. 세종이 32년간의 치적을 마무리짓고 영면에 든 것은 왕의 나이 54세 때이다.

◎ 창덕궁 측우대 (보물 제844호)



▲ 창덕궁 측우대

세종전에 전시되어 있는 측우대는 직경 16.2cm, 길이 4.3cm의 구멍이 파여 그 안에 측우기를 얹혀 놓게 되어 있는데, 본래 창덕궁 금문원(檣文院)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10년 일본인 '화전웅치(和田雄治)'가 측우

기에 대한 논문을 쓴 당시에도 금문원(창덕궁 규장각 앞뜰)에 있다고 기술한 점과 『한경지략(漢京識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체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 조선 정조 6년(1782) 6월과 7월 사이에 계속된 가뭄에 비가 오기를 기원하고 기다리며 이를 제작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술(記述)되어 있다.

1920년경 경성박물관앞 계단으로 옮겨 전시하였다가 6.25사변때 측우기는 없어지고 측우대만 남아 창경원(昌慶園) 명정전(明政殿)뒤에 전시되었다. 이후 1960년말에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옮겼다가 1970년 후반에 영능 전시관에 옮겨진 것이다.

명문은 심염조(沈念祖)가 찬(撰)하고 정지검(鄭志儉)이 썼다.

◎ 양부일구 (보물 제845호)

양부일구는 해시계중의 하나로 반구형(대접모양)의 형태로 인하여 양부일구라는 명칭이 붙었다. 시판은 동지(冬至)에서 시작하여 하지(夏至)에 이르기까지 24절기를 13선의 위선(緯線)으로 긋고 이에 수직으로 시각선(時刻線)을 그었다.



▲ 양부일구

영침(影針) 즉 그림자바늘은 북극성(北極星)을 향하여 비스듬이 꽂았으며 문맹자들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각 시간에 해당하는 신(神)의 그림을 새겨넣는 배려도 잊지않았다.

청동을 재료로 하여 주물을 부어 만들고 글자와 선은 흑색칠 바탕에 은상감(銀象嵌)을 하여 뚜렷이 보이게 하였다. 4개의 발은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수평기준장치를 십자(十字) 형태로 하였다.

시각선이 12시 96각의 시제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36년 시헌력(時憲曆)으로 바꾼 이후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큰 양부일구는 「한양북극고삼십칠도이십분(漢陽北極高

三十七度二十分)」이라 새겨져 있으므로 한양의 북극고도를 37도 39분 15초로 측정하여 확정된 1723년 이전의 것이다. 작은 양부일구는 한양의 북극고도를 37도 39분 15초로 새겼으므로 18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보여진다.

효종대왕릉

- 지정번호 : 사적 제195호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녕릉은 조선 제17대 효종(재위 1649~1659)과 왕비 인선왕후 장씨가 모셔진 쌍릉이다. 효종릉 역시 푸른 소나무들이 능역 주변에 울창하여 그윽함을 풍기지만 세종릉에 비해 찾는 이가 적어 사방이 조용하고 호젓하다.

능을 감싸며 유장하게 흘러내려온 묘내수는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를 빠져나와 참도를 가로질러 흐르고, 참도 가



▲녕릉(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합장릉)전경

운대에 금천교가 놓인 것이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 이채롭고 절묘하다.

정자각 뒤 봉분은 오른쪽이 왕비릉이고 왼쪽이 효종릉이다. 왕비릉엔 둘러쳐진 곡장(曲牆)이 없고 왕릉에는 곡장이 있다. 십이지신의 병풍석은 세조 이래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어 쓰여왔던 것이다.

효종대왕릉은 다만 쌍릉이면서 앞뒤로 엇비슷하게 위치를 잡고 있어 지형과 상관 없이 애당초 ‘나란히’ 놓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석물들은 똑같이 갖춰져 있는데, 배치와 양식은 조선전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1637년(인조15)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 청나라 태종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올리며 항복했다. 삼배구고두란 여진족이 천자를 배알할 때 행하는 의식이었는데 한번 절 할 때마다 머리를 세번 땅에 부딪치는 것을 세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머리 부딪는 소리가 크게 나야하는데 청태종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할 것을 계속 요구해 인조는 퐁퐁 언 땅바닥에 수십번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인해 이마는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치욕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청나라에 8년간 볼모로 잡혀있다가 귀국한뒤 형인 소현세자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분이 조선 17대 임금 효종이다. 효종대왕(1619-1659)의 이름은 호(溟),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였다.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어머니는 서평부원군 한준겸의 딸인 인열왕후 한씨이며 비는 신흥부원군 장유의 딸인 인선왕후(仁宣王后,1618-1674) 장씨이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북벌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청나라와 연결된 김자점 등을 파직시키고 김상헌, 김집, 송시열, 송준길 등 대청 강경파를 중용하는 한편 이완, 유혁연, 원두표 등에게 군비확장을 지시하였다. 1652년(효종 3)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금군을



▲녕릉 전경

기병화하였으며 사포부대를 조직하고 대국을 정벌할 양마를 기르게 하였다. 이밖에도 군사들이 입는 용복의 소매를 짧고 좁게 줄여 간편하게 하고 군례 또한 국궁대신에 공수, 장쾌로 바꾸게하였다. 군비확충을 위해 군역의 의무가 없던 공경등의 상류층에게서 베 1필, 승려에게서 3석씩을 거두기도 했다.

효종대왕은 재위 10년 동안 좋아하던 술도 끊어버리고 심기일전, 복수설치의 의지를 다졌지만 중국의 형세는 명나라의 잔존세력에게 불리하였고 조선에서는 왜란, 호란 등의 전란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북벌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군비보다는 현실적인 경제제건을 주장하는 신하들과 갈등을 겪던 효종이 1659년 5월 4일 41세를 일기로 돌연 승하하니 북벌의 꿈은 허무하게 스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불운했던 시대의 불행했던 왕이다.

효종대왕릉은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1673년(현종14) 10월7일에 지금의 자리로 이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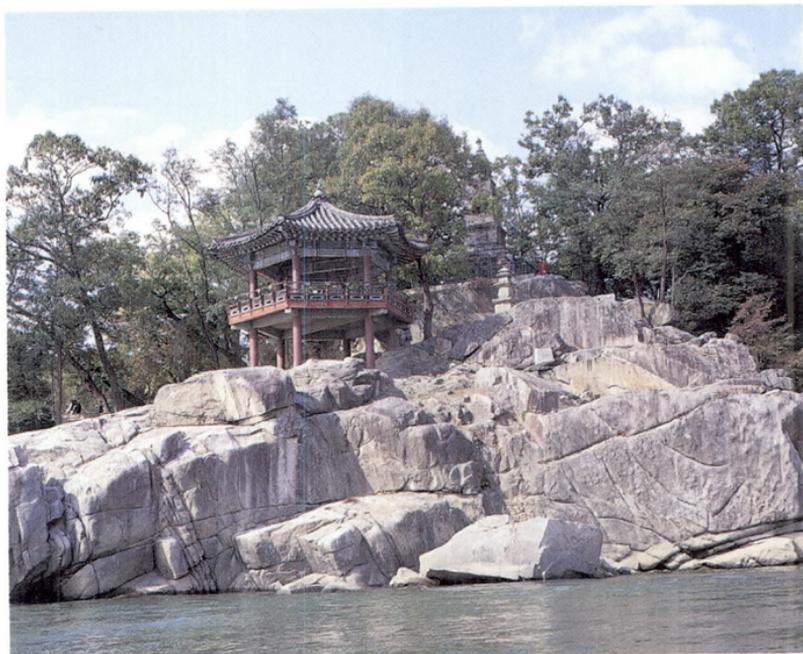
한때 북벌의 웅지를 품고 대륙 공략의 기세를 드높이던 중심 인물들이 우리 여주에 터를 잡고 있다. 효종을 모신 영릉(寧陵)과 효종대왕을 바라보며 애뜻한 모습으로 서

있는 대로사의 송시열 초상, 북좌에 앉아 남면하고 있는
임금을 뵈옵듯 영릉의 정남쪽에 있는 이완 대장묘가 그것
이다.

신록사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록사는 낮고 부드러운 곡선의 봉미산(鳳尾山)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사찰 앞으로는 '여강(驪江)'이라 부르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그 풍경이 아름답다. 조선초 문인 김수온(金守溫)은 이러한 신록사의 절경에 대해 "여주는 국토의 상류에 위치하여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樂土)라 불리웠는데, 신록사가 이 형



▲ 신록사경내의 동대 전경

승의 복판에 있다.”고 칭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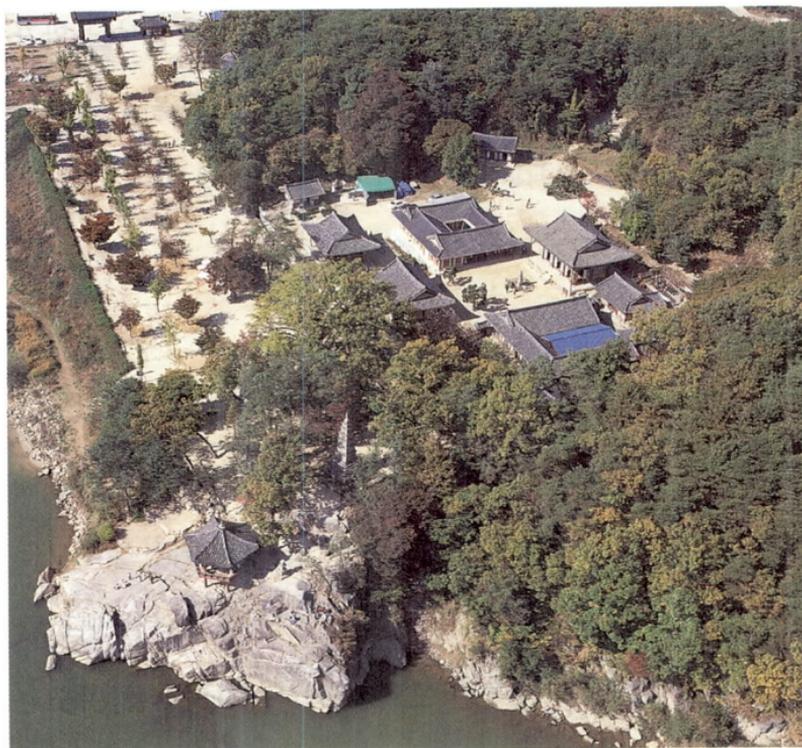
신록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많은 유물·유적들을 간직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절의 내력은 소상치가 않다. 신라 진평왕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유물이나 유적이 없고, 고려 우왕 2년(1376)에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한 절이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조형물도 모두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의 것이다.

신록사의 절이름과 관련한 전설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신기한 미륵 또는 나옹선사가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막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려 고종때 건너편 마을에서 용마가 나타나 견잡을 수 없이 사나우므로 사람들이 붙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때 인당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으므로 신력(神力)으로 제압하였다하여 절 이름을 신록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고풍스런 분위기의 사찰안에는 먼저 구룡루가 관람객을 맞이하며 이곳을 지나면 아미타불의 도량인 신록사의 금당, 극락보전이 있다. 극락보전 앞에는 구름과 용무늬가 아름다운 다층석탑이 소담스럽게 서있으며, 그림같은 단칸집 조사당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나옹선사의 석종부도와 부도비, 석등이 신록사의 고풍스런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

있다. 또한 신륵사를 일명 ‘벽절’이라 부르게한 다층전탑이 오늘도 묵묵히 여강을 굽어보고 서 있으며 나옹선사의 당호를 딴 정자 강월헌(江月軒)에서는 아직도 그 옛날의 시인묵객들이 시 한 수를 읊고 있는 것 같다.

신륵사에 관한 모든 기록은 고려말 나옹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보여질 만큼 나옹 이전의 역사는 기록이 없고 나옹의 입적후 신륵사는 거의 개창되다시피 사찰의 면모가 일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옹의 사건은 사찰의 역사에서 비중이 크다.



▲ 신륵사 전경

나옹이 화장된 곳에 삼층석탑이 남아 있고 절 뒤에 부도를 세운 것은 기념비로서의 구조물이지만 그보다는 그의 공덕으로 인해 절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신륵사로서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나옹이 돌아간 해에 석종이 세워지고 동시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다. 아마도 이때의 중창이 신륵사의 골격을 분명히 한 계기일 것이다. 후에 조선시대에 또 한번의 중창이 있기는 하지만 고려말의 모습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가정해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극락보전과 좌우의 건물, 그앞의 누각이 나옹 입적후의 중창 모습을 어느정도 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고려말의 신륵사에 관한 일로서 첨가할 일은 2층으로 된 대장각을 건립하고 대장경 일부를 봉안한 것이다. 이것이 1382년(우왕 8년)의 일로서 고려말 삼은(三隱)중 한 사람이었던 도은(陶隱) 이승인이 지은 <신륵사대장각기>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다.

조선시대 들어 신륵사는 영릉의 원찰이 되면서 또 한번의 중창의 기회를 맞게된다. 본래 경기도 광주·대모산(현 서울시 강남구 내곡동)에 있던 세종의 영릉을 여주군으로 이장한 것이 예종 1년(1469)의 일이다. 곧 이어서 영

릉의 원찰을 짓는 일이 거론되다가 한명회 등의 건의에 따라 가까이에 있는 신륵사를 원찰로하여 중수하게 된 것이다.

영릉을 원찰로 세우고자 처음 발원을 했던 것은 세조로서 그 유지를 계승하여 실현시킨 것은 세조의 비이자 성종의 할머니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이다. 신륵사의 중수 불사가 끝난 다음해 그녀는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신륵사의 이름을 보은사(報恩寺)로 바꾼다.

나옹 입적후의 중창에서 조선조 성종기의 중창 사이에는 100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성종의 중수 이후에는 앞에 있었던 대규모의 중창까지는 안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몇번의 중수 공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발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피폐된 사찰을 복원시키는 쪽으로의 작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예전의 신륵사는 배를 타고 절앞에 당도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강쪽에서 바라보는 사찰의 모습과 주변의 경관이 매우 중요한 사찰의 이미지가 되었다. 신륵사와 관계된 모든 기록이 이러한 강변의 경승을 언급하고 있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신륵사를 뒤로 하여 안고 있는 봉

미산이 남한강의 북쪽에 있고 그 산줄기는 북쪽으로 올라가 우두산에 이르고 우두산의 줄기는 다시 북쪽으로 뻗어서 고달산에 이른다.

신록사의 동쪽은 강변에 기암 절벽을 이루고 있어서 예로부터 칭송되어온 경승지였으며 그 서쪽 끝이 신록사에 와서 끝나는데 기암의 조합으로 특이한 모양을 보여준다. 바로 이곳에 강월헌이 있었고 (현재의 것은 철조 콘크리트로 지은 신조품) 그 옆에 삼층석탑이 있고 그 바로 위 언덕에 전탑이 있다. 이 바위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빼어나지만 나옹의 다비석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만큼 사역 내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 곳이며 사찰의 입지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다. 또한 신록사가 오래전부터 '벽절'이라 불리운 것도 이곳에 벽돌로 쌓은 탑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전탑은 탑의 정통적인 위치보다도 경관상, 그리고 입지상의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이해됨이 타당할 것이다.

신록사의 위치는 다른 많은 사찰과 같이 깊은 산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경승지에 접해 있다. 이 점은 격리된 채 수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에 위치함으로 대중

과 접하고 구도의 기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할지 모른다. 사실 신륵사는 조선시대에 불자들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이 많이 드나들었으며 시인묵객들의 시귀를 수없이 남기게 한 곳이다.

◎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제226호)

사찰 경내 동남단 강가의 넓은 바위 위에 웅장한 다층전탑 1기가 있다. 이 전탑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이므로



▲ 신륵사 다층전탑 전경

옛부터 신륵사를 가리켜 벽절이라고 한 기록들이 있다.

신륵사 다층전탑은 신륵사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강물을 오르내리는 사공에 의해서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있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신륵사란 절 이름보다

도 이 탑이 더욱 유명하게 되었고, 또 그 탑은 벽돌로 쌓아올린 벽처럼 되었으므로 절 이름까지도 그냥 벽절이라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강 상류의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절벽 아래 부분의 강물이 매우 거세었다고 전해지므로 강 절벽에 건축된 이 전탑은 강을 오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해 주고, 홍수범람을 막아달라는 염원의 뜻이 깃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탑은 그 형태적 측면으로 볼 때 중국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당나라 시기에 세워진 장안 홍교사의 원축탑이나 규기탑, 현장탑 등이 모두 이런 형태이니 아마도 나옹화상이 중국을 여행하며 보고 온 그대로를 이곳에 재현해 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이 탑의 조성 연대에 대해서 혹자는 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아 왔지만 그 문양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탑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탑의 북쪽에는 <송정기원지재병오중추일입>(崇禎紀元之再丙午仲秋日立)이라 한 중수비가 있으므로 그 중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조선 영조 2년(서기 1726년)에 해당되므로 이때 탑을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탑은 또한 기단부가 7층으로 되어 있되 기단 자체

가 체감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에서 상당한 높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단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기억될만 하다. 이러한 기단부의 특성은 아마도 탑 전체를 높게하려는 의도가 고려된 듯 싶으며 그것은 이 탑이 강가 언덕 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려는 의도라 생각된다.

신라시대의 전탑이 벽돌 사이의 간격이 좁은데 비해 이 경우에는 사이가 넓게 면토(面土)를 바르고 벽돌에 연주문(蓮珠紋)을 두르고 그안에 당초문(唐草紋)을 양각한 반원문(半圓紋)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탑은 중간의 수리로 인해 창건 당시의 형태를 다소 잃었다 할지라도 동대의 암반 위에 높이 솟아 신록사의 가람을 지키는 수호신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 신록사 대장각기비 (보물 제230호)

신록사 대장각의 건립 내력을 새긴 비로서 극락보전 서쪽 언덕의 비각에 전한다. 이곳에는 목은 이색이 공민왕과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나옹선사의 제자들과 함께 발원하여 대장경을 인쇄하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2층의 대장각

을 지었다.

비신의 높이는 133cm, 폭은 88cm로서 비신 둘레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고려말 새로 유행된 석비 형식으로 보제존자석종비와 동일한 수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질의 대리석 비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신륵사에는 경율론 3장을 인출하여 이를 수장하던 대장각이 극락보전 서쪽 언덕에 있었다 한다. 서쪽이라면 지금의 명부전쪽이 되리라 짐작된다.

현재 이 비는 신륵사의 동쪽 언덕위에 위치해 있다. 비신은 좌단이 깨어져 몹시 손상되어 글자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이 비를 세운 연대를 밝힌 부분에도 손상이 있어 이를 알 수 없으나 대체로 홍무(洪武) 16년(우



▲ 신륵사 대장각기비 전경

왕 9년, 1383)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나옹의 석종비보다 4년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비문은 자경 2cm의 해서(楷書)로서 예문관제학(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작성하던 예문관의 종2품 벼슬) 이승인이 짓고 진현관제학 권주가 썼다. 뒷면에는 대장경 인쇄와 대장각 건립에 참여한 승려와 신도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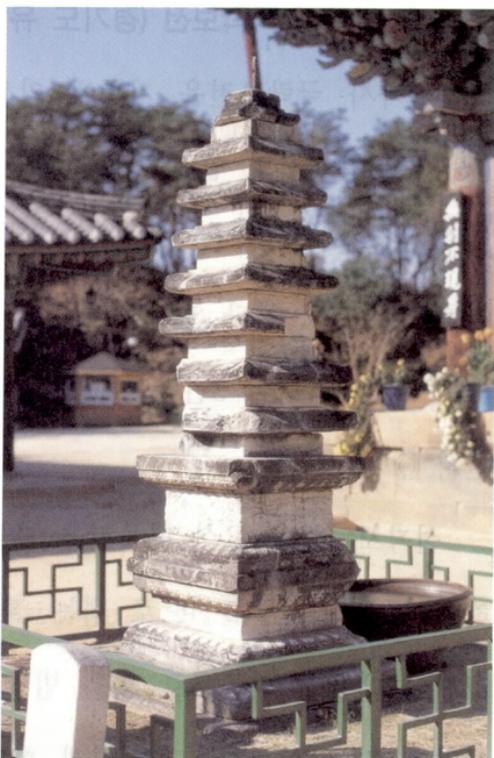
비의 형태는 신라이래 건립되던 일반적인 형식과는 매우 다르다. 즉 귀부와 이수 등의 형태는 볼 수 없고, 그냥 복련대석(覆蓮臺石)과 옥개석(屋蓋石)으로 대치되고 있다. 이와같은 비대와 옥개석은 그 조형이 나옹의 석종비에 서보다 훨씬 간략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비대에서 뿐 아니라 특히 옥개에서 공포와 와구등의 조각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 신륵사 다층석탑 (보물 제225호)

신륵사 다층전탑은 극락보전 바로 앞에 아담하게 세워져 있는 대리석 석탑으로 그 재료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 조각 수법에서도 아름다운 용과 구름문양을 위시하여 연꽃 문양을 남기고 있어 조선초기 공예의 면모를 살피는데 매

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 탑의 위치는 사찰의 구조로 볼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던 원래 위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탑의 형태를 살펴보면 탑과 지면을 잇는 지대석 네면에 모두 연화문을 조각하였으며 이 지대석과 본 탑의 몸체를 구분하는 감석에도 역시 연화문을 새겨넣었다. 탑의 아랫부분 몸체에 섬세한 필치로 조각된 비룡문과 구름무늬는 그 기법이 매우 능숙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워낙 자연환경에 약한 대리석으로 제작되어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고, 상륜부 역시 결실되어 원형을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는 몇 층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작은 보개석 위에 철제 찰주가 있으나 이 찰주에 꽂혀지는 각종 부재는 결실되고 없는 상태이다.



▲ 신록사 다층석탑 전경

이 탑은 신라나 고려시대에 성행한 석탑의 조형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세부 양식을 볼 때 이전 시대의 것과는 다른 조형 감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탑골 공원 내에 있는 원각사 다층석탑(세조12년, 1467)과 양수리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성종24년, 1493)이 재질과 세부 양식면에서 신록사 다층석탑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탑은 영릉의 능침사찰로 지정되어 왕실의 원찰이 되었던 성종 3년(1472) 중창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신록사 극락보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8호)

신록사 극락보전은 기록에 의하면 고려말 우왕 5년(1379) 나옹선사의 입적후 중창되었고, 세종 22년(1440)에 중수되었으며 성종 4년(1473)에 대대적인 중수내지 신축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현재의 극락보전 건물은 정조 21년(1797)에 시작하여 3년만인 1800년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을 주불전으로 하는 절에 비해서 극락전을 주불전으로 하는 절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웅전 다음으로 많은 법당이며 극락정토 왕생의 신앙이 강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서방정토가 서쪽에

있다는 믿음에서 건물이 동향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서쪽을 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신륵사에서는 주불전이며 사찰 전체가 남향하여 있는 만큼 극락보전도 남향한다.

극락보전 내부에는 아미타불을 주부처님으로 하고 양 옆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배치되어 있는 목조 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이 삼존불은 광해군 2년(1610)에 인일, 수천 두 스님이 조성한 것이라 하는데, 1977년도에 다시 금칠을 하였다고 한다.

극락보전 정문 바로 안쪽 상부에는 기이한 현판이 있다. 글씨는 <천추만세>(千秋萬歲)라 되어 있으며 나옹화상



▲ 신륵사 극락보전 전경

의 글씨라고 구전되고 있다. 이 현판은 이상하게도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는 위치에 따라 글씨가 달라 보여 특이함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현판이다.

◎ 신륵사 조사당 (보물 제180호)

조사당은 신륵사에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고려말 기울어 가는 불교계에 한가닥 빛이 되었던 소위 3화상(和尚)이라 불리는 지공(指空)·나옹(懶翁)·무학(無學)의 덕을 기리고 또 그들의 법력을 숭모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중앙에 나옹, 그리고 좌우에 지공과 무학선사의 영정을 봉안해두고 있으며 또 목조(木造)의 나옹화상 독존(獨尊)을 안치했다.

조사란 일종 일파를 개창한 선덕으로 후세 사람들의 귀의와 존경을 받는 스님을 말한다. 조사당에는 흔히 그 절을 개산한 스님과 그 절에서 수행한 덕이 높은 고승들의 영정을 모셔 두고 봄·가을로 기채를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조사전이 없는 절에서는 영각이있어 거기에 선사들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조사전이나 영각은 일찌기 그 절에서 어떤 인물이 살았던가를 보여주는 그 절의

산 역사이기도 하다.

조사당에 봉안되어 있는 세분의 화상은 지공이 나옹의 스승이고, 나옹은 무학의 스승인 관계에 있다. 지공은 인도 승으로 나옹이 중국 유학중에 스승으로 모신 분으로 고려에 와서 그 명성을 드날렸으며, 나옹은 중국에서 10년간 유랑하면서 구도의 행각을 보내, 그의 종교적 덕행이 중국 천하에 널리 퍼지게 되어 원나라 황제의 명에 의해 연경의 광제선사 주지로 부임하여 개당법회를 가진 일도 있었다(공민왕 5년). 후에 귀국하여 공민왕의 왕사가 되기도 했다. 무학은 나옹의 법통을 이어 받은 후법제자이며, 조선 태조의 왕사이기도 했다.



▲ 신록사 조사당 전경

조사당은 낮은 석단 위에 건립한 소규모의 아담한 건물로서 가운데 기둥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대들보를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처마무계를 기둥이나 벽체로 전달하는 공포를 기둥 및 기둥 사이에 배치하는 형식인 다포계의 공포 구성은 큰 건물에 주로 쓰이는 건축양식인데 이 아담한 규모의 조사당이 다포계의 공포를 갖추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하다.

지붕은 팔작지붕을 하고 있으며 전면 전부를 개방할 수 있도록 띠살문을 달아 놓았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큰 나무로 '井'자 처럼 뼈대를 만든 후 그 사이에 작은 나무판들을 끼워서 구성하는 마루)이며 뒷벽 쪽에 불단이 설치되었으며, 내부의 천장은 우물천정(반자의 틀을 '井'자로 짜고 각각의 사이 사이를 넓은 널 등으로 덮어 꾸민 천장)으로 나타냈고 양 측면에는 출입문을 내고 있다.

◎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부도 (보물 제228호)

신륵사 조사당을 지나 양지바른 구릉을 오르면 보제존자 나옹화상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가 있다. 멀리 탁트인 전망은 남한강의 강물이 굽이치는 승경을 향했고, 조용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한 아늑한 이곳은 조사(祖師, 어떤

학파나 종파의 개조)의 묘역으로서 매우 적합해 보인다.

석종부도는 종 모양을 닮았다 하여 석종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넓은 기단의 전면과 측면에는 모두 계단을 내었다.

대체적으로 인도의 불탑이 넓은 기단을 이용해 그 위에 복발(覆鉢, 상륜의 노반 위에 있는 발(鉢)을 덮어 놓은 모양으로된 부분)형의 부도를 안치하는 것에 비해 이 부도는 복발형보다는 돌종(石鐘)을 기단 위에 놓은 형태이다. 신라 이래 유행하던 팔각원당형의 부도 형식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다소 새로운 양식을 가미하여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조성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나옹의 부



▲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부도

도는 재래의 그와 같은 부도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조형적 의지를 나타낸 특수한 탑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석종형 부도로서 이와 같은 조형 의지는 이후 조선시대에 계속 전수되어 기단이 더욱 약화됨으로써 소위 석종부도를 탄생케 되었고 오늘날 사원 근처 숲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도를 낳게 되었다.

지상에 넓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부도를 안치하였다. 묘역 전면에 얇은 돌을 깔고 낮은 네모 모양의 기단 위에 2단의 받침대를 깔았다. 기단의 정면과 좌우면에는 2단의 계단이 있고, 기단의 끝에는 조각이 있다.

이 석종부도의 건립은, 석종 뒤쪽에 건립되어 있는 석종비에 의하면 나옹의 입적(1376년) 3년 후인 우왕 5년(1379년)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부도는 고려말기에 와서 다소 변화된 조사부도의 한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신록사 보체존자 석종앞 석등 (보물 제231호)

보체존자 나옹의 석종 바로 앞에 그 형태가 매우 아름다운 석등이 있다. 이 석등은 석종부도를 장엄하기 위한 공양구(供養具)로서 바로 묘탑 앞에 건립된 그 형태가 매

우 특이한 석등이다. 석등의 재료는 일반 석등에서와 마찬가지로 화강석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독 화사석(火舍石, 석등의 중대석 위에 있는 점등하는 부분)은 납석(蠟石, 기름과 같은 광택이 있고, 만지면 양초같이 매끈매끈한 암석)을 사용했다. 또 이곳에는 비천(飛天) 또는 용을 새겨 매우 화려하게 나타내고 있다.

석등의 형태가 매우 묵직하고 또 세부의 섬세한 조각을 피한 남성적 작품이라면 이 석등은 매우 섬세하고 또 전면에 걸쳐 아름다운 조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적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 석등의 구조는 역시 8각의 기본형을 취하고 있다. 8각의 기단 위에 8각의 화사석과 옥개석(屋蓋石, 탑의 옥신석 위에 덮



▲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앞 석등

은 지붕 모양의 돌), 그리고 그 정상에 보주(寶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구슬 또는 여의주로 탑의 꼭대기에 장식)를 놓은 구조이다. 양각된 비천, 그리고 비룡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화사석은 손상이 심하여 매우 애석하게 생각된다.

이 석등은 고려말기 석등의 대표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무덤 앞에 놓이는 장명등의 선구적인 일례로 평가되고 있다.

◎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비 (보물 제229호)

보제존자의 석종 바로 뒤쪽에는 보제존자 나옹의 석종비가 있다.

보제존자는 밀양 형원사(瑩源寺)로 가는 도중 이곳에서 입적하여 부도를 마련하고 또 부도를 건립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여흥군신륵사 보제사리석종기>(驪興郡神勒寺 普濟舍利石鐘記)로 시작되는 그 첫줄에 잘 나와있다.

비문은 앞뒷면 가득 새겨져 있는데 앞면에는 <여흥군신륵사 보제사리석종기>(驪興郡神勒寺 普濟舍利石鐘記)라 하여 나옹을 추모하는 내용과 부도를 조성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뒷면에는 <보제존자진당시병서>(普濟尊者眞

堂詩并序) 및 부도 조성 불사에 동참했던 사대부중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새겨진 인물들은 환암, 고암, 무학 등 당대의 고승을 망라하였고, 재가신도로는 염제신, 이인임, 최영, 이득분 등 당대 권신들이 모두 동참하고 있다.

고려 후반기의 전형적인 비석의 형태를 보여주는 이 비는 총높이 212cm로서 비신(碑身)은 121cm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비신의 폭은 61cm이며 기단과 비받침대 및 지붕돌은 모두 화강석이다. 비문의 자경(字徑)은 약 2.2cm, 해서(楷書)로 기록되었다.

보통 비를 받치는 기단은 용과 거북 등을 조각하는 것에 비해 목에서처럼 지붕 모양과 기왓골까지 조각하여 특이하다.

비문은 당



▲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비

대를 대표하는 문필가 이색과 명필 한수가 각각 짓고 썼는데 단정한 필치가 돋보이는 명품이다.

고 달 사 지

- 지정번호 : 사적 제382호
- 시 대 : 신라~조선시대
- 소 재 지 : 여주군 북내면 왕대리 산411-1의 일원

여주 혜목산 고달사지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circ}23'95''$, 동경 $127^{\circ}39'65''$ 이다. 군의 북부지역에 있는 북내면은 1914년 군내의 북면(北面)과 강원도 원주군 지내면(地內面)을 합하고 강천면 가정리를 편입하여 이루어진 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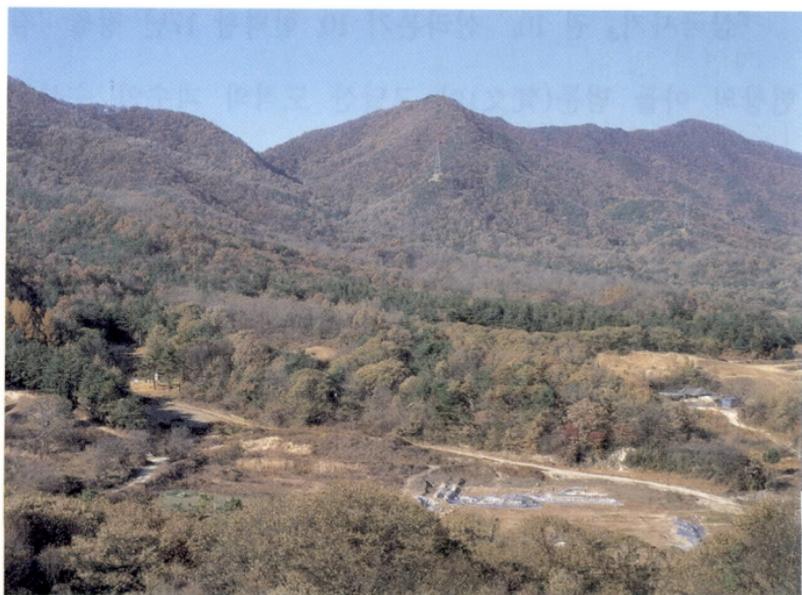
자연적 입지는 해발 400~500m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盆地)의 서북쪽 고달산(혜목산, 현지명은 우두산)동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은 여주읍에서 여주교를 건너 우측으로 원주방면 42번 국도를 따라 약 2km진행하면 좌측으로 용문방면 331번 지방도가 나온다. 지방도를 따라 약 8km 정도 진행하여 고달사지 표지판을 보고 좌측길로 접어들면 길이 끝나는 지점에 고달사지가 위치한다. 이 길은 고달사지와 여주

음을 이어주는 중요 교통로로 분지 안에 위치한 고달사가 외부와 통하던 유일한 도로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달사의 정확한 창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고달사는 곧 고달원(高達院)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이래의 유명한 삼원(三院) 즉 도봉원(道峰院), 희양원(曦陽院), 고달원(高達院) 중의 하나로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관장하는 대찰이었으므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와, 보물 제 6·7·8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원종대사혜진탑, 고달사지석불대좌 등이 남아있는



▲ 고달사지 전경

데, 이들 석조유물들은 하나같이 넘치는 힘과 호방한 기상이 분출하는 가운데 화려하고 장엄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 사지내에 있던 원종대사의 비와 쌍사자석등(보물 제282호)은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고 서울 경복궁 근정전 내에 이전되어 있다.

◎ 고달사지의 연혁

『봉은사 본말지』에 의하면 고달사는 764년(신라 경덕왕 23)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신라 하대에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10, 헌덕왕 17년 정월 ‘김현창의 아들 범문(梵文)이 고달산 도적의 괴수인 수신등 100여인과 더불어 모의하여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자하여 북한산주를 공격하였으나, 도독 총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붙잡아 죽였다’는 기록에서 고달산의 이름이 나온다.

『조당집』권 17 혜목산화상조에는 ‘원감화상 현육은 장경의 제자로 837년(희강왕2) 중국에서 귀국하여 혜목산에 띠집을 마련하고 거처하니 혜목산화상이라 하였다. 신라 경문왕(861~875재위)은 고달사에 머물기를 명하고 기묘한

향약을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라하여 원감화상 현옥(788~869년)에 대한 기록이 있다.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鳳林寺 眞鏡大師 報月 凌空塔碑)」에는 '진경대사 심희(854~923)가 9세때 혜목산의 원감에게 도를 배워...' 라는 기록을 통해 진경대사가 혜목산 원감대사에게 입문했던 사실을 알 수있다.

고달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중의 하나인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문」의 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옥이 혜목산에 머물렀다. 벼랑에 나무를 걸치고 골짜기에 엮어매어 처음 세웠던 것을 다시 수리하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완성되었다. 선사에는 승가의 모범이었고, 홍각선사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

위의 비는 선림원지 홍각선사의 제자였던 운철(雲徹)이 왕명을 받들어 886년(헌강왕12)에 세운 것이다. 신라 구산선문중 봉림산파(奉林山派)를 열었던 현옥이 이 절을 중건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옥스님이 신라 경문왕의 청으로 고달사에 왔다는 기록이나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에 나왔듯이 진경대사가 9세에 이르러 혜목산 원감대사에게 입문했던 사실

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원종대사혜진탑비문」에는 고달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921년(고려 태조4) 중국에서 돌아와 고달원이 선거(禪居)에 적합하다하여 고달원으로 옮기니 사방에서 법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958년(고려 광종9) 고달원에서 입적후 법통은 삼중대사 혼홍(昕弘)이 이어받고 이밖에 중대사(重大師) 동광(同光), 행근(幸近) 등 500여인의 문도가 있었다.’

‘… 고달원, 도봉원, 회양원 등 나라 안의 사원중에서 오로지 세 곳만이 문하의 제자가 동요하지 않고 대대로 이어 주지하는 것을 법도로 삼으니…’라 기록되어 있다.

고려중기 천태종을 열었던 의천(1055~1101)의 「대각국사비문(大覺國師碑文)」에도 고달사의 이름이 보인다.

의천이 천태종을 만들 때 흡수한 불교세력에 대하여 기술하는 가운데 ‘거둔사·신사·영암사·고달사·지곡사’의 5대 사원에서 이름있는 학승들이 왕명으로 회합하였다. 그밖에 의천의 문하에 곧바로 들어왔던 학승은 300여명이었다. 앞의 5대 사원의 학승은 무려 1,000명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고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왕명으로 5대 사원의 승려들을 회합하였다. 5대사원이란 강원도 원주 현계산 거둔사, 경상도 삼가현 영암사, 경상도 진주 지곡사, 황해도 해주 신평사로 추정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 여주 고달사가 포함되고 있다. 위의 사찰은 당시 유명 고승이 주석하였던 대사찰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원공국사(圓空國師) 지종(930~1018)이나 진관선사(眞觀禪師) 석초(912~964) 등이 머물던 사찰이다.

특히 고달사는 광종대 원종대사 찬유 이래 3대사원으로서 이 당시까지도 사세를 떨쳤기에 5대사원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며, 5대사원중 1개 사원에서 보낸 승려가 200여명이니 그 정도를 짐작케 한다.

「대각국사비문」에 의하면 의천이 불교진흥을 할 때에는 이전의 5대사원과 천태종 국청사를 합하여 6대사원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의천이 입적한 뒤에는 다시 본산의 사원으로 돌아간 듯하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고달사는 고려중기 숙종대까지는 적어도 5대(또는 6대)사원에 들어갈 만큼 대사찰이었던 것이다.

고려중기 이후 고달사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

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말 문신인 유향 한수가 고달사에 와서 한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 금래고달고정사(今來高達古精舍) … 일조비석기
청천(一條碑石奇青天) … ’

‘ … 이제 고달 옛절에 음은 … 한 개 비석은 푸른 하늘에 기대었네 … ’

이 시로 미루어 고려 후기 14세기 후반까지는 고달사가 존속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5년(1459)의 기록을 보면 ‘백정 김생석·을석 등이 고달사에 모여 … 발사하여 항거하였으니 …’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황해도 해주의 고달사인 지, 여주의 고달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고달사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 7 여주 불우조에 보면 ‘고달사는 취암사(鷲巖寺), 상원사(上院寺)와 더불어 혜목산에 있다. 고달사에는 한림학사 김정언이 비문을 지은 승혜진탑비(僧慧眞塔碑)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1530년까지는 고달사가 있었던 것 같다.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창건 후 9C말~10C말경

이 제일 번창한 것 같으며 이후 사찰의 명맥은 유지하면서 1530년경까지는 존속한 듯 하다. 그 이후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범우고』에는 고달사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두 책을 비교하건데 고달사는 17세기를 전후하여 폐사된 듯 하다.

◎ 고달사지의 전설

도봉원, 회양원과 더불어 고려 삼원중 하나인 고달원은 그 규모가 대단해 원종대사와 같은 국사(國師)의 주석 사원으로 손색이 없는 거대 사찰이었다. 또한 이곳에는 고달사와 버금가는 취암사, 상원사 등이 해묵산에 있어 승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개사리천이 쌀뜨물로 뿌영게 물들여 흘렀다고 전래되는 옛 이야기에서 가히 거찰의 면목을 짐작케 한다. 또한 고달사지로 들어오는 길목 오른편으로는 신타이봉이라는 나지막한 등성이가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스님들이 시주를 나갔다가 돌아올 때 신발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서 쌓인 봉우리라고 한다.

고래산 원편으로 뺏어내린 곳에 죽바위가 있는데, 마치가축이 죽을 먹는 형국에서 비롯돼 마을 이름이 주암리라는 곳이 있다. 이 주암리에서 산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여인이 미려한 자태로 앉은 듯한 옥녀봉이라는 명산이 있다. 예로부터 옥녀봉에는 금맥이 많아 금광이 있는 산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흘러나간 사금(砂金)이 개울 바닥에 깔려 있어 개울 이름이 금당천이다. 이 옥녀봉에는 유난히 바위가 많은데 말을 타고 사냥을 한다는 뜻에서 안장바위, 매바위 등의 의미있는 이름의 바위들이 있다. 또한 여인의 살림도구 등 대표적인 농바위, 장구바위, 거문고줄을 뜻하는 줄바위가 북쪽 등성으로 넘어 간 끝자리에 거문고를 상징하는 거문동이라는 동리가 있다.

바로 옥녀봉에 이런 이름들이 즐비하게 생기게 된 내력은 이러하다. 고달사의 공사가 한창일 때 국공(國工)으로 와서 불사에 정성을 다하는 한 석공이 있었다. 바로 고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석공은 남달리 혼심의 힘을 다해 정을 쪼며 돌에다 아름다운 무늬를 조각해 나갔다. 멀리 두고온 가족이 그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산바람을 타고 울창한 숲새로 돌 다듬는 정소리는 마냥 튀고 그러한 나날이 어언 삼년이 지난 어느날 집을 다녀올 기회가 와 집을 챙겨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집을 찾은 고달은 흠칫 놀랐고,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한 비보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모는 병환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뜨고 그 마음씨 고왔던 아내는 남편을 찾아 길 떠난뒤 종무소식이라는 동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고달은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섰다 한다.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알아낸 사실은 그리던 남편을 찾아 고달사로 찾아오던 아내는 산도적을 만나 그만 참변을 당하고 세상을 버렸다는 애절한 사연뿐이었다.

그후 고달은 승려가 되어 한평생을 고달사에서 애달프게 죽은 아내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며 불도를 닦는 홀륭한 스님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달의 아내가 가엾게 죽은 사연을 알게된 옛 사람들은 고훈이 되어 천상을 쓸쓸히 떠도는 것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 농바위, 장구바위, 거문고 줄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 주었다 하는데 이 무렵부터 이곳을 옥녀봉(玉女峰)이라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수백년을 전해오는 것이라고 한다.

◎ 고달사지 석불대좌 (보물 제8호)

20여 호의 농가를 지나 고달사터에 들어서서 처음 만나는 유물이 석불대좌이다. 불상 없이 대좌만 있는데 보물

제8호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수법이 뛰어난을 짐작할 수 있다.

좌대는 높이 1.57m에 사각이며, 상·중·하 지대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3중으로 겹쳐 놓은 방형대좌(네모반듯한 형태의 상(像)을 안치하는 받침대)에, 각 단의 구성은 각기 다른 돌로 다듬었으며 소담한 복련과 양련(仰蓮, 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위로 향한 모양의 무늬)을 조각해놓은 모습이 장엄하다.

지면에는 대좌 전체를 받치고 있는 지대석이 놓여 있

고 그 위로 각형 받침이 안정감 있게 한 단의 턱을 이루고 있다. 각형받침의 각 면에 안상(탑이나 대좌 등의 석조물 대좌



▲ 고달사지 석불대좌

에 팔면(八面)의 오금곡선을 안쪽에 파놓은 모양)을 조각하였고, 위로 복련(覆蓮, 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아래로 쳐져 내린 모양의 무늬)을 둘러 새겼으며, 중대를 받치는 3단 받침이 놓여 있다. 사각의 중대는 각 면 좌우에 우주(宇宙)를 모

각하였으며, 4면에 모두 큼직한 안상을 하나씩 음각하였다. 상대에는 하대와 같은 기법의 양련을 시원하게 둘러 새겼으며, 상대받침은 3단의 역계단식으로 구성하고 가운데 것은 둥글게, 위아래는 각형으로 두었다.

전체적으로 방형인 대좌는 연꽃과 안상을 교체하면서 유연하고 명쾌한 조각솜씨로 조화시킨 고려 초기의 역작으로 꼽힌다.

◎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비 귀부및 이수 (보물 제6호)

975년에 세운 해묵산 고달선원 국사 원종대사비를 받쳤던 귀부(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와 비신 위에 얹혔던 이수(용 모양을 새긴 비석의 머릿돌)이다. 1915년 봄에 넘어져 8조각으로 깨진 비신(비문을 새기는 비의 몸체)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비신없이 귀부와 이수만 맞



▲ 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물려 있다.

거북을 비의 받침으로 삼으니 귀부(龜趺), 이무기를 지붕으로 삼으니 이수(螭首)라 한다. 거북은 지상과 하늘을 잇는 매개이면서 천년 수명을 누리는 장수의 상징이고, 이무기는 하늘을 나는 용의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둘 다 신성하기 이를 데 없는 영물이다.

원종대사부도비 귀부와 이수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귀부와 이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태산 같은 힘을 분출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이 깊고 뚜렷하여 귀부의 튀어 올라온 거북등만 보아도 그 힘을 당할 장사가 천하에 없을 듯이 보인다. 치켜 올라간 눈꼬리가 험상궂기 이를데 없고, 콧등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코를 벌름거리며 눈을 부릅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여의주를 물지 않은게 특이하다.

꼭 다물어 옆으로 길게 찢어진 입에는 양 끝으로 물갈퀴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둥글게 흘러내려 발을 덮은 귀갑(거북등의 껍데기), 땅을 꼭 누르고 있는 발과 선명한 발톱, 태산처럼 버티고 앉은 모습이 한껏 사실감을 준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이수의 맨 아래에 양련(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위로 향한 모양의 무늬)을 둘러 새기고 1단의 층을 두었다. 앞면에는 중앙의 전액(篆額)을 중심으로 구

름과 용무늬로 장식하였으며, 전액 안에는 ‘혜목산고달선원 원종대사지비(慧目山高達禪院元宗大師之碑)’라 쓰여 있다. 전액을 받치고, 전액을 화려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도깨비의 몸이어서 새롭고 특이하다.

이 거대한 귀부와 이수가 각각 단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또 한 번 놀란다. 고려 초기에 지향했던 거대함과, 원종대사가 당시에 미쳤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었는지를 짐작할 만하다.

◎ 고달사지 부도 (국보 제4호)

높이 3.4m인 부도의 전체 구조는 원종대사 부도와 비슷한 팔각원당형이나, 지대석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종대사 부도보다 앞선 연대의 것으로 추측된다. 원종대사 부도는 4개의 돌을 정교하게 짜맞춘데 비해 이 부도는 팔각의 지대석을 놓았다. 기단부·탑신부·지붕돌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으로, 신라의 양식을 비교적 정직하게 이어받은 고려시대 초기 부도의 빼어난 작품이다.

지대석은 중심에 놓인 팔각 대석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판석으로 짜여 있다. 지대석 위로는 두툼한

돌로 킴대를 놓아 다소 높다는 느낌을 준다. 아래 부분은 안상을 음각으로 새겼는데, 그 중심에 귀꽃모양의 안상을 한 면에 한 구씩 꾸민 것이 이채롭다. 상단에는 연꽃을 복련(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아래로 처져 내린 모양의 무늬)으



▲ 고달사지 부도

로 둘러 피게 해 시원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중대석의 둥근 몸돌에는 거북을 중심에 두고 네 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서 노닐고 있다.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거북머리는 형식화된 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변에 정교한 솜씨로 다듬은 용머리와 힘이 넘치는 그들의 몸짓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사실감을 주며 웅장하기까지 하다. 큼직한 연꽃이 앙련(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위로 향한 모양의 무늬)으로 둘러진 받침 위에 팔각 상대석을 놓고 몸돌을 안치하였다.

팔각 몸돌에는 정면과 후면에 자물통이 달린 문짝과 창살문, 사천왕이 번갈아 조각되어 있는데,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몸매의 균형이 잘 잡힌 사천왕상이 돋보인다.

두툼한 지붕돌이 자칫 투박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여덟 귀의 전각을 날렵하게 들어올린 큼직한 귀꽃(석탑·석등의 옥개석 추녀마루 끝에 새겨진 꽃 무늬 장식)이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 지붕돌 처마 밑에는 아름다운 비천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부도의 주인이 지금 천상세계에 머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붕돌 정상면에 이르러 복련을 두르고 상륜부를 받치도록 하였으나, 현재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고 지붕돌을

축소해놓은 것 같은 보개(상륜의 보륜과 수연사이에 있는 단집 모양의 부분)만 남아 있다. 그 위에 찰주(상륜의 심주. 곧 탑의 중심기둥)를 꽂기 위한 원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륜부는 매우 화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 (보물 제7호)

원종대사혜진탑은 원종대사 입적 19년 만인 고려 경종 2년(977)에 화강석으로 조성한 부도이다.

나말여초에 유행했던 팔각원당형의 기본형식에 각 부



▲ 원종대사혜진탑

의 수법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다소 시대적인 특징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4매 석이 맞물려 짜인 넓은 방형(네모 반듯한 형태)의 지대석 위에 4매로 짜인 사각의 하대구조가 특이하다.

이 부도는 밑이 약간 넓고 중대석 몸

돌이 거대하다. 등글면서 잘룩한 허리에 새겨진 중대석의 문양이 눈길을 끈다. 정면 중앙에는 부리부리한 눈과 윤곽이 뚜렷한 귀부형의 용이 머리를 길게 빼어 서쪽으로 외돌리고 있는게 매우 동적이다. 그 좌우에는 네 마리 용이 꿈틀거리며 구름 사이를 응비하고 있는데 섬세하고도 웅혼함이 넘친다. 중대석 뒤편에서 거북이 등을 보이고 있어 보기 드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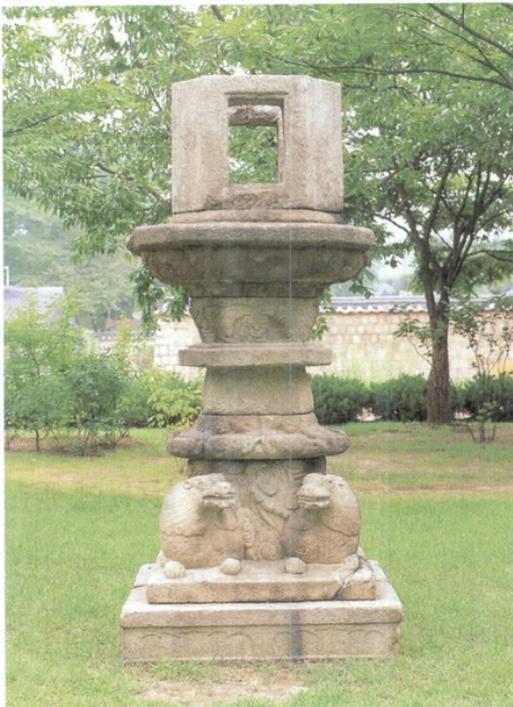
상대석은 두툼한 양련(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위로 향한 모양의 무늬)받침으로 구성되었는데, 매우 정돈된 느낌을 준다. 부도의 몸돌은 팔각으로 다듬어져 있는데, 정면을 중심으로 문짝과 사천왕상 입상을 번갈아 새겼다.

팔각 지붕돌 역시 하나의 돌로 조각하였다. 중대석의 용이 서기어린 구름바다 속에서 노닐고 있으며, 지붕돌 천장에는 비천상이 새겨져 있어 이곳이 곧 천상의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수평을 이룬 추녀에 위로 향한 여덟 귀의 전각은 반전이 큰 편이다. 전각 위로는 고사리 모양의 귀꽃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중 세 개는 파손되고 없다. 정상부에는 팔각 띠를 두르고 상륜부를 받치고 있으며, 팔각의 노반(탑의 상륜을 받치는 최상 옥개상 위에 놓는 석물)과 화문이 장식된 복발(상륜의 노반 위에 있는 발(鉢)을 얹어

놓은 모양으로 된 부분) 위에 보개(상륜의 보륜과 수연 사이에 있는 단집 모양의 부분)를 얹었다. 보륜(노반 위의 양화와 보개 중간에 있는 9개의 바퀴 모양으로 된 부분)과 보주(모든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구슬 또는 여의주로 탑의 꼭대기에 장식)가 모두 훼손 없이 남아 있다.

◎ 고달사지 쌍사자석등 (보물 제282호)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신라말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벗어난 이형적 양식의 석등으로 원래 고달사터에 쓰러져



▲ 고달사지 쌍사자석등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인 경복궁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현재 불을 밝히는 부분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고 그 위의 옥개석과 상륜부는 없어졌는데, 이것은 원위치에서 수습될 당초부터 없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고달사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없어졌던 석등의 옥개석과 지대석이 찾아졌다. 발굴 담당자에 따르면, 옥개석이 찾아진 지역은 조사실시 당시에 민가가 들어서 있었는데 마을 촌로들이 이 민가의 보수작업을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석등을 반출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지점이라고 한다. 발굴단은 출토된 석등 옥개석의 출토 지점과 크기, 석등 실측도를 대조해 본 결과 보물 제 282호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의 옥개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석등은 장방형의 지대석 위에 놓였는데 2장의 돌을 조합하여 구성하였고 각 측면에는 2구의 안상을 장식하였다. 그 위의 하대는 쌍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조각석을 놓고 있다. 중대는 8각의 간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간주는 아래위 2장의 돌로 따로 만들어 이어 붙인 것이며, 특이한 구름무늬를 4면에 장식하고 있다.

상대석은 부등변 8각형으로, 그 밑면에는 2단의 받침이 있으며 위에는 꽃잎이 위를 향해 벌려 있는 연꽃잎이 돌려졌다.

화사석도 부등변 8각형인데 각 면에는 2개의 기둥조각이 정연하고 화창은 넓은 4면에만 뚫렸는데, 장방형 창문

의 가장자리는 얇게 음각하여 액을 만들었다.

이 석등은 사자석등형 양식중에서도 이형양식에 속한다. 즉 신라 때와 같이 쌍사자가 두 발로 서서 직접 상대석을 받치지 않고 사각형의 하대석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뿐 상대석을 직접 받치지 않고 그 위의 다른 부재가 받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이전 시대와 다른 것이다.

하대의 안상과 상대석의 연꽃잎 등은 신라식을 갖춘 것이나, 쌍사자상의 각부 조각과 중대의 구름무늬 및 조각문양은 둔중해진 감을 주고 있는데, 이와같은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보면 이 석등의 조성연대는 고려초기인 10세기 경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대로사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호
- 시 대 : 조선 1785년(정조 9)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하리 201-1

우암(尤菴) 송시열(宋詩烈)선생을 모신 사당으로 정조 9년에 김양행(金亮行)등 유림에 명하여 건립하고 동년에 사액(賜額, 임금이 사원등에 이름을 지어 편액을 내림)되었다. 현존하는 건물은 본전 24평, 강당 57평, 비각 8평, 내·외 삼문 12평에 도합 101평의 규모이다. 1785년에 왕명



▲ 대묘사 전경

으로 창건되어 대로사라 사액되었는데 1873년 (고종10)에 강한사로 개명되었다.

주축상에는 사당과 내·외삼문이 일렬로 배치하고 있으며 강당은 주축에 직교되게 위치하고 있다. 비각은 외삼문 밖에 있는데 담장이 둘러져 별도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집인데 전면에는 개방된 퇴간이 있고 측면과 후면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는 위패와 영정이 봉안된 감실이 있다. 부재형태와 가구수법은 18세기 익공형식의 기준이 될 만큼 완벽하다.

이 사당은 다른 사당과는 달리 서쪽을 향하여 효종대 왕릉을 바라보고 있다. 송시열은 효종이 북벌을 꾀하였을 당시 선생에게 북벌을 논의하던 가장 신임하는 신하이며 왕의 대군시절 스승이었다. 김자점의 무리가 청나라에 효종이 새 사람을 등용하여 장차 항거하려 한다고 무고(誣告)하니 청은 병력을 국경에 집결하고 사신을 보내어 추궁하였다. 이에 선생은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효종 9년(1658년)에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다음해 효종이 승하하였다. 그 뒤 효종의 장례때 대왕대비의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윤휴(尹鑄)의 3년설(設)에 맞서 기년설(1년)로 시비

가 분분하다가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肅宗)이 즉위하자 덕원, 태천, 거제, 청풍 등지로 귀양살이를 하였다.

숙종 15년(1689년)에 왕세자 책봉문제로 상소하였는데, 숙종의 비위를 거슬러 노여움을 사서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그 후 5년만에 복관(復官)되었으며 시호는 문정이다.

대로사비(碑)는 조선(朝鮮) 중기(中期)의 거유(巨儒)인 송시열(宋時烈) (1609~1689)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조(正祖)11년(1787)에 세운 것으로 '대로'는 송시열의 존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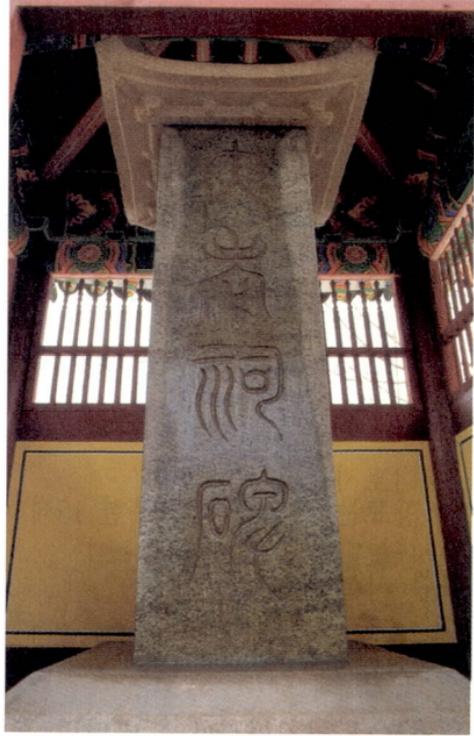
대로사비는 방형 대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모양의 개석을 얹었다. 앞면에는 '대로사비'라는 전서



▲ 대로사 입구 전경

제목이 있고 나머지
면에 정조가 짓고 쓴
비문이 있다.

대로서는 1779년
정조가 효종대왕릉(녕
릉)을 참배하고 여주
관아에 머물렀을 때
옛날 송시열이 능을
향해 통곡하며 후진에
게 북벌의 대의를 주



장했다는 말을 듣고서, ▲ 대로서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84호)

선비들의 주청을 받아 수행한 김양행에게 사당 건립을 추
진케 하여 1785년 창건한 사당이다.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강한사(江漢祠)로 개칭되어
남아 있다.

여주향교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호
- 시 대 : 조선 18세기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교리 261-1

향교는 서당에서 공부한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를 교육 하던 시설이다.

원래 여주향교는 여주읍 상리 마암(馬巖)근처에 건립 되었으나 임진왜란때에 타버린 후 1685년 여주읍 홍문리의 잣나무고개에 다시 건립하였다. 그런데 그후부터 부락 주



▲ 여주향교 전경

민이 자주 괴질에 희생되고 풍수학상 불길하다 하여 교리(校里) 현 위치로 이견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5칸의 대성전, 8칸의 명륜당, 5칸의 동재(東齋), 내삼문(內三門), 각 8칸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집인데 평면은 뿔자형으로 중앙의 4칸 대청 좌우에 3칸 온돌방이 있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집인데 대성전의 옆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익공계의 형태와 가구 수법으로 미루어 대성전과 함께 18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



▲명륜당

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강학(講學)공간이 명륜당으로만 축소되어 규모가 크지 않으나 건물들은 부재의 형태나 결구법에서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향교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6,7명이 담당하고 있다.

목 이 박 물 관

○ 소 재 지 :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5-2

목아박물관은 무형문화재 제108호(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수집한 6,000여점의 불교관계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불교 전문 박물관이다. 1989년에 시작하여 1990년 4월 본관전시실이 완공되면서 전통공예관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부속건물들을 건립하여 1992년 12월 국가 제28호로 박물관 지정을 받아 1993년 6월 12일 개관식을 가졌다.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된 전시관에는 불화, 불상등의 유물과 함께 동자상을 비롯한 불교관계 목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야외조각공원에는 미륵삼존대불, 비로자나불, 삼층석탑, 백의관음, 자모관음상 등이 조화롭게 자리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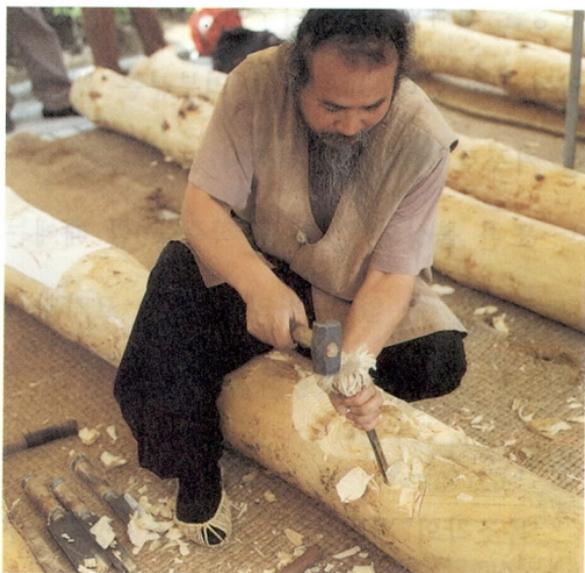


▲ 목아박물관 전경

고 있다. 목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념미타도량참법』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은 각각 보물 제1144호, 1145호, 114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 밖에도 불교사찰에서 전해 오던 많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어 매년 기획전과 특별전을 통해 유물들을 공개하여 불교문화와 미술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역할에 힘쓰고 있다.

목아 박찬수는 불교목공예가로 1986년 아시안게임기념 불교미술기획전에서 종합대상인 종정상을 받았고, 1989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범상을 출품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나무로 불교 조각품을 만드는 목조각장으로 그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목아 박찬수는 공예산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에 목아 불교 박물관 ▲ 목아 박찬수관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관을 설립하였으며, 『불교목공예』, 『수미단』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불교목공예를 쉽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불교 목공예의 맥을 잇는 작업을 인정받아 1996년 12월 무형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받았다.

그는 목조불상과 보살상 등을 우리 불상의 모습으로 조각하며, 그 외 불교의식에 쓰이는 불구 뿐만 아니라 장승과 같은 민속 조각품도 조각하고 있다.

목조각에 쓰이는 나무는 향나무·전단향나무·침향목·피나무 등이 있으며 작품의 소재에 따라 목재의 선택을 다르게 한다.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부분에 따라 견고성과 방향성 그리고 무늬와 색깔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불상을 제작할 때도 나무의 머리부분과 불상의 머리부분이 일치해야 한다. 나무의 머리부분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세워야만 통풍이 잘된다.

또한 불상과 같이 큰 작품을 할 때에는 하나의 통나무로 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나무를 접착제로 붙이고 조임틀을 이용하여 서로 접목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조각의 기법은 음각·부조·양각·투조·환조·음양각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창

칼 · 평칼 · 삼각칼 · 반원칼 · 원칼(등근칼) 등이 있다.

◎ 예념미타도량참법 (보물 제1144호)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성종 1년(1470)에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 윤씨가 성종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목판본이며 5권 1책이다.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을 보면 글씨는 당시 지중추부사(조선시대 중추부의

정2품 벼슬) 성임이 써서 판각한 것이다.

이 책은 공혜왕후가 돌아가시자 세종, 소헌왕후, 세조, 의경



▲ 예념미타도량참법

대왕, 예종 등을 추앙하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새긴 것이다.

이때 왕실에서는 인수대비, 인혜대비를 비롯하여 공주, 숙의, 상궁 등과 당시 고승인 신미, 학열, 학조 등과 종실의 종친들인 월산대군, 제안대군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당시 일류화가와 각수(刻手, 새김칼로 무엇을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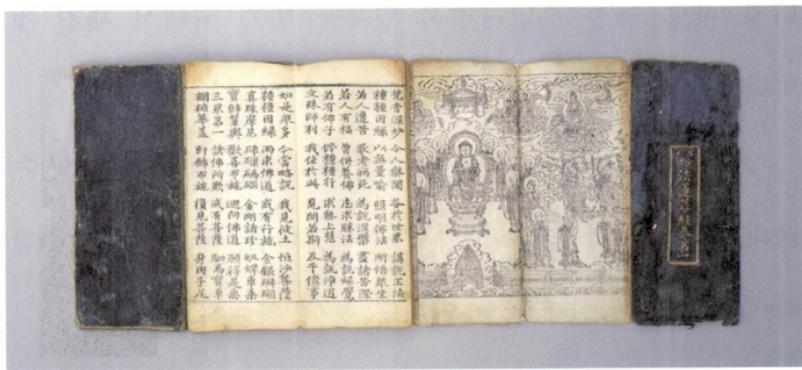
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 백종린, 이장손, 장막동, 이영산 등이 총동원되어 판각한 것으로 조선시대 전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목판본이다.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광(半匡) 23.4×16cm에 유계(有界)이고 반엽(半葉)에 13자 8행씩 인쇄하였고 본문에 구독점(句讀占)을 찍었다.

◎ 묘법연화경 (보물 제1145호)

묘법연화경은 조선 태종 때 신총의 글씨로 새긴 목판본으로 앞부분 변상도를 판본으로 인쇄하고 다음에 묘법연화경을 인쇄하였다.

권말의 간기는 잃었으나, 본문의 서법으로 보아 조선 1410년(태종 1)에 신총이 태상왕 태조의 명을 받아 필사한 것을 판각한 수능엄경과 동일한 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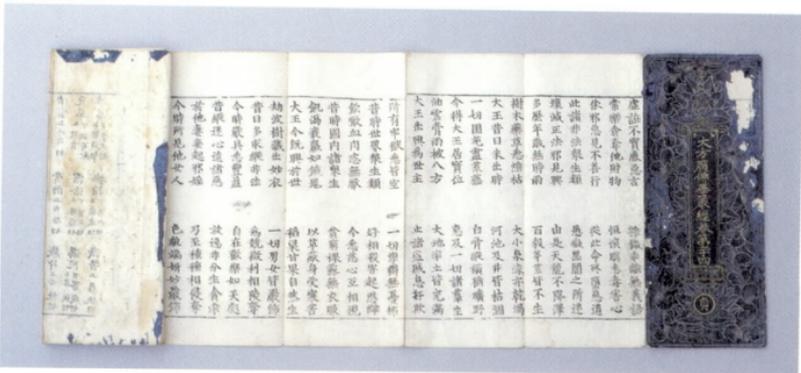
▲ 묘법연화경

신종의 필사로 간행한 판본으로는 수능엄경이 보물 제 759호로 지정되었고, 법화경 권3이 보물 제9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변내(邊內) 크기는 20.8×62.4cm에 18자 36행으로 된 것을 6행씩 접어서 첩을 만들었다. 표지는 감색 바탕에 표제(表題)를 「묘법연화경 권제일(妙法蓮華經 卷第一)」이라고 금니(金泥)로 필사(筆寫)하였다.

◎ 대방광불화엄경 (보물 제1146호)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의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반야삼장이 한역(漢譯)한 정원본 40권 중의 제24권이다. 판본은 국보 제206호로 지정된 해인사 소장 고려각판에서 인쇄한 것이다.



▲ 대방광불화엄경

표지(表紙)는 감색 표지에 금은니(金銀泥)로 보상화문(寶相化紋)을 장식하고 표제(表題)를 「대방광불화엄경 권제이십사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四)」라고 금니(金泥)로 표시하였다.

판각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되며, 인출은 감색 표지에 금은니의 보상화문, 지질, 인쇄상태 등으로 미루어 1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미 보물 제1017호로 지정된 정원본(貞元本)과 같은 계통이나 표장법에서 보상화문이 있고 없는 차이를 보여준다.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상하변간(上下邊間)은 22.5cm 장(長)의 크기는 30.5×48.8cm에 일행 17자씩 24행인데 6행씩 꺾어 첩을 만들었다.

여주군의 문화재 현황

합계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무형	소계	문화재자료	도유형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	소계	묘역	서원	우물	기념물
71	27	1	20	3	1	1	1	28	5	13	7	2	1	16	11	1	1	3

■ 국가지정 문화재

종별	호수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국보	4	고달사지 부도	북내면 상교리 411-1	62. 12. 02
보물	6	고달사지 원종대사해진탑비귀부및이수	북내면 상교리 419-3	63. 01. 21
	7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	북내면 상교리 산 45-1	63. 01. 21
	8	고달사지 석불대좌	북내면 상교리 420-5	63. 01. 21
	91	여주 창리 삼층 석탑	여주읍 상리 산 136-1	63. 01. 21
	92	여주 하리 삼층 석탑	여주읍 상리 산 136-1	63. 01. 21
	180	신록사 조사당	북내면 천송리 282	63. 01. 21
	225	신록사 다층석탑	북내면 천송리 282	63. 01. 21
	226	신록사 다층전탑	북내면 천송리 282	63. 01. 21
	228	신록사 보계존자 석종부도	북내면 천송리 282	63. 01. 21
	229	신록사 보계존자 석종비	북내면 천송리 282	63. 01. 21
	230	신록사 대장각기비	북내면 천송리 282	63. 01. 21
	231	신록사 보계존자 석종알 석등	북내면 천송리 282	63. 01. 21
	844	창덕궁 축우대	능서면 왕대리 83-1	86. 08. 05
	845	양부일구	능서면 왕대리 83-1	86. 08. 05
	874	완양부원군 이충원 교서	산북면 백자리 147	86. 10. 08
	941	선조어서사 송연선 밀찰첩 외	가남면 심석리 산 66	87. 12. 29
	1144	예념미타도량참법	강천면 이호리 396-2	92. 12. 11
	1145	묘법연화경	강천면 이호리 396-2	92. 12. 11
	1146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강천면 이호리 396-2	92. 12. 11
	1308	호성공신 홍진 교서	대신면 계림리 318	01. 05. 17
사적	195	영릉·녕릉	능서면 왕대리 산 83-1	70. 05. 26
	251	파사산성	대신면 천서리 산 9외	73. 07. 23
	382	여주 고달사지	북내면 상교리 411-1외 일원	77. 07. 21
천연기념물	209	여주 신접리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북내면 신접리 285	68. 07. 18
민속자료	126	여주 김영구가옥	대신면 보통리 190-2	84. 01. 01
무형	108	목조각장 박찬수	강천면 이호리 396-2	96. 12. 31

■ 도지정 문화재

종별	호수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정일
문화재 자 료	3	여주향교	여주읍 교리 261-1	83.09.19
	37	영월루	여주읍 상리 136-1	83.09.19
	75	기천서원	금사면 이포리 산 26-1	87.02.13
	79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점동면 사곡리 179-3	00.04.17
도유형	106	이민군 영경	홍천면 북대리 271-1	00.05.17
	20	대로서	여주읍 하리 200-1	72.07.03
	35	포초골 미륵좌상	금사면 외평리 454-1	73.07.10
	41	명성황후 탄강구리비	여주읍 능현리 250-2	73.07.10
	46	명성황후 생가	여주읍 능현리 250-2	73.07.10
	84	대로서비	여주읍 하리 200-1	79.09.03
	98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홍천면 계신리 산 5	80.06.03
	128	신록사 극락보전	북내면 천송리 282	85.06.25
	139	여산송씨 족보	가남면 심석리 산 66	91.04.12
	145	여주군 경수연도	강천면 부평리 186-1	93.02.01
	148	정대년 신도비	점동면 원부리 산 2-2	93.06.03
	160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	금사면 도곡리 산 7	96.01.19
	167	이충원 영정	산북면 백자리 244	96.04.13
	178	인재 홍진 영정	대신면 계림리 318	01.05.17
기념물	16	이완장군묘 및 신도비	여주읍 상거리 산 19-1	73.07.10
	36	서희장군묘	산북면 후리 53-1	77.10.13
	132	여주 석우리선돌	북내면 석우리 260	93.02.01
	133	여주 처리선돌	점동면 처리 산 88-6	93.02.01
	155	여주 혼암리 선사유적	점동면 혼암리 산 2-1	95.07.25
	165	구암 한백겸묘 및 신도비	강천면 부평리 481-1	96.04.13
민속자료	180	여주 매통리 고분군	여주읍 매통리 산 1-1외	02.09.16
	2	여주 보통리 해시계	대신면 보통리 190-2	80.06.02
무형	11	여주 이포리 옹기요지	금사면 이포리 산 13	02.10.05
	37	옹기장 김일만	금사면 이포리 산 13	02.10.05

■ 향토유적

종별	호수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정일
묘역	1	원두표선생묘 및 신도비	북내면 장암리 산 1-8	86.04.10
	2	원호장군묘 및 신도비	북내면 장암리 산 1-8	86.04.10
	3	원유남장군묘	북내면 장암리 348-1	86.04.10
	4	민정중선생묘 및 신도비	여주읍 하거리 산 21-8	86.04.10
	5	민유중선생묘 및 신도비	여주읍 능현리 산 26-23	86.04.10
	6	민진후선생묘 및 신도비	가남면 안금리 산 56-1	86.04.10
	7	홍영식선생묘	홍천면 문장리 산 82	86.04.10
	8	최시형선생묘	금사면 주록리 산 96-19	86.04.10
	9	박준원선생묘 및 신도비	여주읍 가업리 산 7-1	86.04.10
서원	13	임원준선생묘 및 신도비	여주읍 능현리 산 25-5	86.04.10
	16	이계전선생묘	점동면 사곡리 371	99.10.26
	10	매산서원	능서면 번도리 321-4	86.04.10
기념물	11	단종 어수정	대신면 상구리 산 11-1	86.04.10
	12	상방하원석실묘	북내면 상교리 산 46-1	86.04.10
	14	여주 산절리 고인돌	북내면 신절리 56	96.01.11
	15	길수의 효자비	능서면 왕대리 200	96.03.28

내 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록집

발행일: 2003년 4월 30일

발행처: 여주문화원 (T: 031-883-3450)

발행인: 한 만 규

편집: 조 성 문

사진: 박 수 찬

디자인/제작: 아성인쇄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여

백

